〔報 文〕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Vol. 15, No. 1 (1991) p. 28~37

韓國 衣類學 硏究의 現況과 再照明 : 1959~1990

鄭 燦 辰·朴 信 貞*·黃 善 珍*

아이오아 주립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학과*

Changing Focus and Development of Korean Clothing and Textiles: 1959-1990

Chan-Jin Jung · Shin-Jung Park* · Sun-Jin Hwang*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Graduate School, Iowa State University
Dept. of Fashion-Desian, Sung Kyun Kwan University*
(1990. 12. 8 접수)

Abstract

Clothing and Textiles was introduced in the 1950s to Korea and has been developed. At this moment, it seems to be valuable to identify state of art of researches in clothing and textiles field.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rends of subject-matter emphasis in clothing and textiles. The data were included clothing and textiles related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three professional journals from 1959 through 1990 and condensed at 5 year intervals. The identified 620 articles with clothing and textiles subject-matter emphasis were categorized in six areas: clothing construction, textiles, history of costume, design and aesthetics, socio-psychological aspect of clothing, and fashion merchandising.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Since 1959,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growth in terms of the number of research as well as in quality of research particulary considering the short history of the field.

2. The number of each area research was ranked as follows: 1) textiles (217) 2) history of costume (173) 3) socio-psychological aspect of clothing (88) 4) clothing construction (79) 5) fashion merchandising (34) 6) design and aesthetics (22) and others (7)

3. In the area of textiles, the most dominant area was clothing management (102 out of 217) and clothing hygenics research was getting increased from the late of 1980 through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 In the area of history of costume, most of the research have been published through Journal of Korean Costume Society. History of korean costume was the most dominant area (120 out of 173) and history of eastern costume area was getting increased from the late of 1980s.

5. In the area of socio-psychological clothing, the research was accelated in the beginning of 1980s through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while the research was

decreased a little in the late of 1980s.

6. In the area of clothing construction, it was revealed its decrease the percentage of total number of research and most of them were published through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7. In the area of fashion merchandising, there has been continuous increase in the number of research from the late of 1970s to 1990, present.

For the future direction, implications for interdisciplinary and ecological approach were suggested.

Ⅰ. 序 論

衣服은 人間에게 가장 기본적인 要求중의 하나로서 自然, 人間 그리고 그의 社會的, 文化的 環境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한다[1]. 이때, 衣類學은 衣服을 통하여 人間의 物理的, 心理的 欲求를 만족시킴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家庭이나 社會의 專門化를 도울 수 있는 실용적인 外向的 主體와 과학적이고 이론적인 內向的 主體의 두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다[2].

이러한 사명아래 衣類學 硏究者들은 우리의 社會的, 文化的 環境안에서 그 社會가 요구하는 衣類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家政學이 國內에 처음 소개된 1929년을 시점으로 하여 초창기의 衣類學은 단지 家庭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技術敎育에 역점을 두었으나 科學이 발달하고 생활이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家庭에서 뿐만 아니라 社會에서 요구하는 專門家를 양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實用學問으로서 발전하여 왔다. 최근에는 몇몇 대학들이 家政大學의 명칭을 生活科學大學이나 生活文化大學, 家政科學大學으로 개칭해 나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衣類學을 포함한 家政學이 여성위주의 가정교육을 중시하는 기존의 固定觀念으로 부터 벗어나 科學으로서 존재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그 연구내용에 있어서 社會科學, 自然科學, 藝術까지 포함하는 綜合科學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독자적인 학문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때 衣類學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현재의 衣類學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나아가서 衣類學은 어디로 향하여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작업은 매우 의의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1950년대부터 당시 미래의 衣類學 硏究方向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1959年에 衣類學科 교수들이 Maryland 대학에 모여 衣類學 敎育의 目標와 衣類學이 미래에 어떻게 도전되어야 할 것인가를 건의하였고 衣類學의 연구분야를 세분하여 그 연구범위 및 敎育의 주안점을 강조하였다[3]. 또한 Braisie등[4]은 衣類學을 社會科學, 즉 經濟學, 心理學, 社會學에 접근시켜 그 연구 범위와 관련연구들을 소개하였고 이와 관련된 제안점을 언급하였으며 家政學과 社會科學과의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Anspach[5]와 Chowdhary와 Meacham[6] 역시 衣類學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專門學會誌에 발표된 논문의 편수를 측정하고 年度別로 硏究主題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Anspach[5]는 1925년부터 1958년까지 專門學會誌에 발표된 衣類學 관련 논문과 1948년부터 1958년까지의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총 210편의 논문을 수집 정리하여 분석하였다. 여기서 衣類學 관련논문의 硏究主題는 纖維學 분야를 제외시키고 消費者를 중심으로한 복식디자인, 의복선택, 의복경제 및 경영, 재봉, 시장정책 그리고 의복정리 분야로 분류하여 恐慌前期, 恐慌期, 戰爭時期, 戰爭後期의 硏究動向을 각각 파악하였다. Chowdhary와 Meacham[6]은 1911년부터 1980년까지 70년동안 두 권의 家政學 專門學會誌에 발표된 衣類學 관련 논문 2274편을 발췌하여 硏究主題別로 즉 衣服構成과 디자인, 衣服消費, 服飾史, 衣裳社會心理學과 纖維學으로 분류하여 10년 간격으로 변화추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硏究主題의 방향은 다양하게 변화하여 왔으며 특히 纖維學 분야는 衣類學 硏究者들의 硏究가 가장 많았다고 보고하였고 미래의 衣類學 硏究傾向과 도전을 위하여 몇가지 제안점을 언급하였다.

國內에서는 문수재와 이기열[2]이 韓國의 家政學 未來發展을 위한 검토의 일환으로 大韓家政學會誌의 창간호부터 1983년까지 발표한 家政學 논문 572편을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이들은 家政學을 7분야로 분류하여 각 분야에 대한 일반적 정보와 韓國家政學 敎育의 현황, 문제점 그리고 未來展望을 제시하였다. 또한 大韓家政學會는 1977년과 1984년 두 차례에 걸쳐 家政學의 독자적 學文領域의 구축과 硏究의 活性化를 위하여 國內外에 발표된 논문을 근거로 하여 최근 硏究傾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1977년의 정보에 의하면 家政學을 衣生活, 食生活, 住生活과 兒童學 분야로 분류하여서 각 분야별로 연구범위와 動向을 분석정리하였다. 衣生活 분야는 服裝構成學, 被服材科學, 그리고 服飾意匠學의 세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服裝構成學은 衣服構成, 被服衛生, 人體와 衣服構成, 패턴디자인 및 제작법과 봉제를 포함하였다[7]. 그러나 1984년에는 전반적인 家政學 분야뿐만 아니라 衣類學 분야 역시 더욱 체계화, 전문화되어 분류되었다. 이 때의 衣類學 硏究主題는 衣類科學, 衣服構成學, 服飾史 硏究, 衣類社會學으로 구분되었고 각 분야는 다시 細分化되어져 분야별 연구논문을 수집하여 國內外의 先行硏究를 최신정보로서 제공하였다[8].

그러나 급변하는 環境과 社會요청에 따라 衣類學은 專門化, 細分化되어 성장하여 왔으나 國內의 衣類學 硏究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 즉 초창기에서 최근까지의 國內의 衣類學 硏究動向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衣類學이 實用學問으로서 뿐만 아니라 科學으로서 존재하려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여 衣類學의 未來方向을 제시하는 한가지 방법으로서 國內의 衣類學 관련 專門學術誌에 발표된 논문을 발췌하여 年度別, 學會誌別, 硏究主題別로 國內의 衣類學 硏究의 역사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며, 둘째는 衣類學의 硏究主體別 변화를 파악하여 衣類學 未來硏究를 위한 방향의 指針을 제시하는 것이다.

II. 硏 究 方 法

1. 資料의 수집

본 연구에서는 현재 國內에서 발간되고 있는 衣類學 관련연구의 대표적 專門學術誌라고 여겨지는 大韓家政學會誌, 韓國衣類學會誌, 그리고 服飾誌에 발표되었던 衣類學 관련 논문을 분석단위로 채택하였다. 각 學會誌의 창간호부터 1990년 6월까지 30년 동안의 모든 논문을 포함하였고 여기서 세미나용이나 기타 보고문은 제외시켰다. 그 결과 본 硏究의 분석자료로 사용된 논문 편수는 총 620편으로 각 學會誌別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大韓家政學會誌는 1959년의 창간호부터 1990년 28권 2호까지 80권으로서 그 안에 포함된 총 논문의 편수는 295편이며 2) 韓國衣類學會誌는 1977년 창간호부터 1990년 14권 2호까지 모두 34권이었으며 총 논문의 편수는 260편이며 3) 服飾誌는 1979년의 창간호부터 1989년까지 年間 1회 발행되어 모두 13권으로서 총 논문의 편수는 101편이었다.

2. 資料의 分析節次

1) 分析類目 (Categories of Analysis)

分析類目을 결정하기 위하여 Chowdhary와 Meacham의 연구[6]와 1984년 大韓家政學會가 발행한 家政學 硏究의 最新情報 衣類學편[8]을 기초로 하여 예비조사와 硏究者와의 토의를 거쳐 재정리, 조정하였다. 최종 硏究主題의 類目을 7분야, 즉 衣服構成學, 被服科學, 服飾史, 服飾意匠學, 衣裳社會心理學, 衣類商品學 및 기타로 명명하였다. 그 분류체계와 연구범위는 <표 1>과 같다. 여기서 硏究主題의 명명에 대한 설정은 제목과 요약에 의거하였고 한 분야 이상 혼합되어 분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논문은 가능한 가장 우세한 분야에 포함시켰거나 조사자들과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조사자 3명이 2명, 1명으로 각 조를 이루어 硏究主題를 명명하였다.

2) 分析資料의 信賴度

硏究主題에 대한 명명설정의 客觀性과 一觀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信賴度 檢證[9]을 하였다. 신뢰도 측정자료로서 大韓家政學會誌에서 衣類學 관련논문 23편과 韓國衣類學會誌에서 36편의 논문, 총 59편을 무작위로 발췌하였다. 3명의 硏究者가 2조를 이루어 동일한 논문 59편을 대상으로하여 硏究主題를 명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신뢰도 계수(Coefficient of Reliability)를 구하였다.

$$\text{신뢰도 계수 (C.R.)} = \frac{2M}{N_1+N_2} = \frac{2\times 50}{59+59} = 0.898$$

N_1 : 조사원 한명이 연구주제를 명명한 논문의 편수

N_2 : 조사원 두명이 공동으로 연구주제를 명명한 논문의 편수

M : N_1과 N_2의 명명한 연구주제가 일치한 논문

<표 1> 의류학 연구주제의 분류체계와 그 범위

의복구성학	의복의 기능성	피부면의 형태변화로 본 기능성, 착용실험에 의한 기능성, 동작적응성, 특수의복의 기능성
	의복의 치수설정	표준치수, 치수분포, 등급법
	원형제작	기본원형, 부분원형
	체형연구	연령별 체형연구, 체형의 비교 및 비례
	봉제기술 및 기타	
피부과학	피복재료학	섬유의 구조, 피복재료의 보건적, 형태적, 기계적, 내구성 성능, 방직제품 이외의 피복재료, 봉제과학, 신제품 소개 및 기타
	피복정리학	제면활성제, 세탁 및 뒷처리, 표백 및 염색, 가공, 환경과학, 피복손상, 품질관리 및 의복생활
	피복위생학	인체생리, 의복재료의 위생학적 성능, 의복과 환경의 온열조건, 의복착용상의 위생학적 사항, 각종 피복과 그 위생
복식의 장학	복식디자인	디자인 요소와 원리, 컴퓨터 디자인
	복식미학	의복과 예술사조 및 문학, 미의 상징적 특성
복식사	한국복식사	
	서양복식사	
	동양복식사	
	복식사 방법론 및 기타	
의상사회심리학	인상형성, 동조성, 유행, 역할, 자아개념, 성격, 가치관, 욕구, 사회계층, 의상흥미, 디자인 및 피복관심	
의류상품학	상품선호도	디자인 및 상표선호도
	의사결정과정	문제인식, 정보원 탐색, 선택기준, 구입행동, 구입후의 행동, 위험부담
	유행	유행주기에 의한 소비자집단
	생활양식	
	전반적인 구매행위	
	국제무역 및 기타	
기타	의류학 교육 및 의류학 전반에 관한 연구	

의 편수

그 결과 신뢰도 계수는 0.898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3) 資料의 分析方法

수집된 분석자료는 年度別, 學會誌別, 研究主題別로 나누었으며 學會誌別과 研究主題別 변화추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5년 간격으로 분류하였다. 자료의 통계적 분석방법으로는 SPSS를 통한 記述統計를 사용하였다.

III. 結果 및 內容分析

1. 年度別 分布

본 研究를 위해 발췌된 총 논문 620편을 근거로 하여 年度別 변화를 보면 〈표 2〉와 같다. 이는 1959년 大韓家政學會誌의 창간이후 1977년의 韓國衣類學會誌, 1979년의 服飾誌의 창간과 함께 1990년에 이르기까지 全般的

<표 2> 연도별 논문의 빈도와 퍼센트

기 간	N	%
1959~1964	14	2.3
1965~1969	7	1.1
1970~1974	28	4.5
1975~1979	113	18.2
1980~1984	202	32.2
1985~1990	256	41.3
계	6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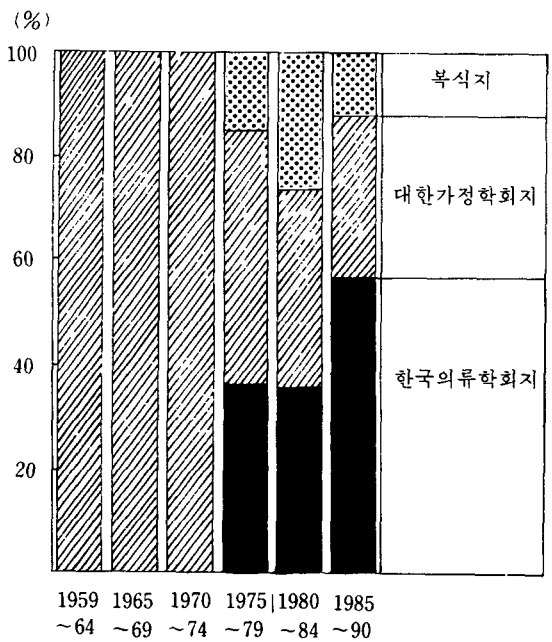
으로 논문의 量的 팽창을 가져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1965~69년에는 전반적인 증가추세에 逆行하여 오히려 논문의 편수가 감소하였다. 이 시기는 1964년 國內 최초로 家政學科가 家政大學으로 승격하여 衣生活學科로 막 분과되기 시작한 시기로 衣類學이 家政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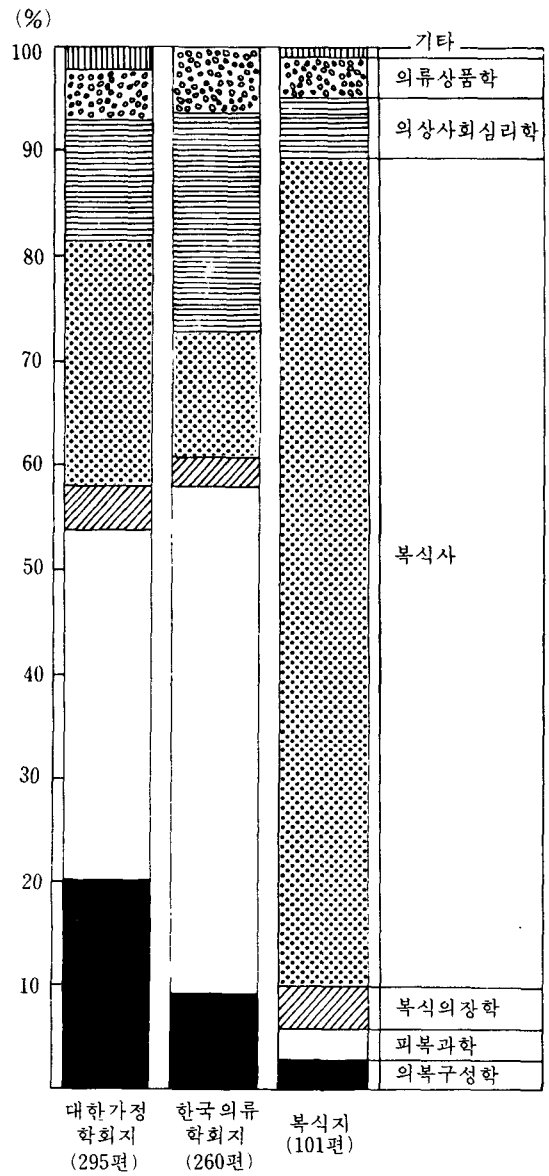
분리되어 독자적인 학문의 위치를 갖추기 시작하던 轉換期로서 보다 체계적이고 성숙한 衣類學 硏究發展에 앞서 그 연구가 다소 둔화된 시기라 생각된다. 1975~79년에는 韓國衣類學會誌와 服飾誌가 창간된 시기로 그 연구논문의 편수가 1970~74년의 시기보다 약 4배로 현저하게 증가되어 衣類學 硏究發展에 활기를 띠었으며 1980~84년에는 大韓家政學會誌, 韓國衣類學會誌, 그리고 服飾誌를 통한 연구 발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로 1975~79년의 시기보다 거의 2배가 증가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985~90년에 역시 계속적인 증가추세로 學問的 영역의 확대와 成長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0년 현재 43개 대학으로 衣類學 관련학과의 數가 현저하게 증가되어 衣類學 敎育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앞으로도 衣類學 硏究는 계속 증가될 것이 기대된다.

2. 學會誌別 分布 및 變化

연도별 각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의 분포상황은 〔그림 1〕에 나타내었다. 1959~64년, 1965~69년, 1970~74년에는 衣類學 관련논문은 大韓家政學會誌에만 의존하여 왔으나 韓國衣類學會誌와 服飾誌의 창간으로 인하여 1975~79년 와서는 衣類學 硏究者들은 大韓家政學會誌와 衣類學의 전문잡지인 韓國衣類學會誌, 服飾誌에 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1980~84년에는 大韓家政學會誌나 韓國衣類學會誌가 발표한 衣類學 논문의 편수는 양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985~90년에는 韓國衣類學會誌의 연구발표가 大韓家政學會誌의 발표논문 편수를 앞서기 시작하였다. 이때는 韓國衣類學會誌가 衣類學의 전문학회지로서 그 위치를 구축해가기 시작한



〔그림 1〕 연도별 각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의 분포



〔그림 2〕 학회지별 연구주제의 분포

기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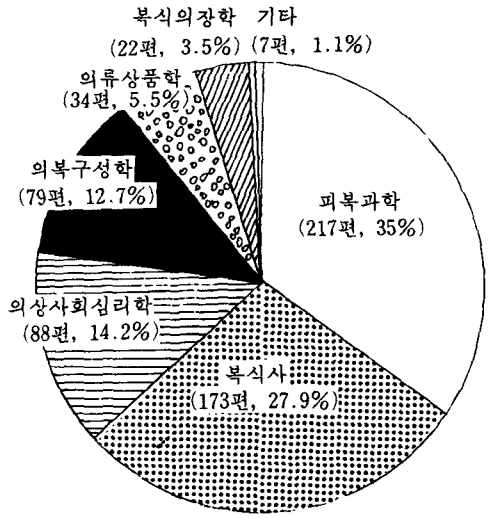
學會誌別 研究主題의 분포상황은 〔그림 2〕와 같다. 학지에 따라 연구주제의 점유율이 차이가 있었다. 大韓家政學會誌의 연구주제별 순위를 보면 1) 被服科學 2) 服飾史 3) 衣服構成學 4) 衣裳社會心理學 5) 衣類商品學 6) 服飾意匠學으로 나타났으며 韓國衣類學會誌는 1) 被服科學 2) 衣裳社會心理學 3) 服飾史 4) 衣服構成學 5) 衣類商品學 6) 服飾意匠學 순이었다. 두 학회지 모두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진 분야는 被服科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韓國衣類學會誌에서는 衣裳社會心理學 분야의 연구발표가 大韓家政學會誌보다 활발하다는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1970년대 초기에 소개된 衣裳社會心理學이 새로운 학문으로서 1977년 韓國衣類學會誌의 창간에 접목되어 학문적 위치를 구축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服飾誌의 연구주제는 복식사가 전체의 79.2%였고 그 다음 순위는 衣裳社會心理學으로서 7.9%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1979년 韓國服飾學會가 창립될 때 창립구성원들이 주로 服飾史 硏究者들이었으며 많은 硏究者들이 服飾誌를 服飾史 분야의 전문학회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3. 硏究主題別 分布 및 變化

본 연구에 사용된 총 620편의 논문 중 연구주제별 순위는 1) 被服科學(217편) 服飾史(173편) 3) 衣裳社會心理學(88편) 4) 衣服構成學(79편) 5) 衣類商品學(34편) 6) 服飾意匠學(22편) 7) 기타(7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논문의 주제별 분류기준과 연구에 포함된 기간에 차이는 있지만 미국에서 이루어진 Chowdhary and Meacham의 연구[6]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纖維學 분야가 전체의 51.4%로 그동안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진 분야로 나타났다. 그러나 服飾史가 그 다음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소비자의 의류선택이나 예산, 의류소매업 등에 관련된 衣服消費 분야가 전체의 22.1%로 나타나고 있으며 服飾史는 9.8%였다. 이외에 衣裳社會心理學(8.6%), 衣服構成 및 디자인(8.1%) 분야는 우리나라와 전체 논문의 구성 비율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연구주제별 분포상황은 〔그림 3〕과 같고, 분야별 연구주제의 하위그룹에 대한 논문편수는 〈표 3〉에, 연도별 연구주제의 변화추이는 〈표 4〉에 나타내었다.



〔그림 3〕 연구주제별 분포

被服科學은 전체 연구의 35%로 衣類學에서 가장 활발하게 연구되어진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섬유산업의 발달에 의한 社會的, 時代的 요구에 부응한 결과라고 여겨지며, 被服科學은 피복의 원료섬유의 생산에서부터 최종 消費者의 피복 소비생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연구범위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다른 어느 분야보다 더욱 전문화되어 被服材料學, 被服整理學, 被服衛生學으로 구분되어 연구의 학문적 위상을 굳건히 하여 왔다고 본다. 전반적인 연구의 증가 추세에 반하여 1980~84년에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1980년대 초기에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및 임금상승으로 인한 원가상승으로 인하여 섬유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被服科學의 연구활동 역시 다소 약화된 것이라고 본다. 被服科學을 세부적인 연구주제별로 살펴보면 1) 被服整理學 2) 被服材料學 3) 被服衛生學 순으로 논문의 편수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중 한가지는 그 연구주제의 성격에서 기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被服材料學은 피복의 원료생산 및 그 원료자체의 성질과 관련된 생산과학적인 측면의 연구를 포함하는 반면 被服整理學은 그 피복재료와 消費者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피복소비, 보관 및 그와 관련된 環境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분야로서 보다 消費科學的 측면에 접근한 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被服材料學의 연구분야는 타학문, 즉 纖維工學과 많은 관련을 갖는 반면 被服整理學이

<표 3> 연구주제별 빈도 및 퍼센트

연구주제	주제의 하위그룹	N	%	연구주제	주제의 하위그룹	N	%
의복구성학	의복의 기능성	25	31.6	의상사회 심리학	인상형성	4	4.1
	의복의 치수설정	16	20.3		동조성	3	3.4
	원형제작	23	29.1		유 행	6	6.8
	체형연구	9	11.4		역 할	14	15.9
	봉제기술 및 기타	6	7.6		자아개념	15	17.0
	계	79	100.0		성 격	8	9.1
피복과학	피복재료	58	26.7		가치관·욕구	18	20.5
	피복정리	102	47.0		사회계층	9	20.5
	피복위생	57	26.3		기 타	11	12.5
	계	217	100.0		계	88	100.0
복식의장학	복식미학	18	81.8	의류 상품학	상품선호	2	5.9
	복식디자인	4	18.2		의사결정과정	15	44.1
	계	22	100.0		유 행	5	14.7
복식사	한국복식	120	69.4		생활양식	3	8.8
	서양복식	41	23.7		구매행위	6	17.6
	동양복식	7	4.0		국제무역 및 기타	3	8.8
	복식사관련	4	2.3		계	34	100.0
	계	173	100.0	기 타	——	7	100.0

나 被服衛生學은 人間을 중심으로서 衣類學 범위내에서 나름대로 독자적인 연구영역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분야라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被服整理學은 衣類學내의 被服科學 硏究者의 가장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여겨진다. 被服衛生學 분야는 연구편수가 아직은 적게 나타났지만, 1970년 후반부터 계속적인 증가추세로 본격적인 연구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被服衛生學 분야의 발전이 더욱 기대된다.

服飾史 분야의 연구는 전체의 27.9%로서 두번째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服飾史 연구는 오랜동안 衣類學의 고전적인 연구주제로서 많은 硏究者들이 관심을 가져왔지만 1985년 이후에 상당히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服飾史의 전통적인 연구주제에 대응하여 새로운 연구분야의 출현 즉 衣裳社會心理學이나 衣類商品學의 부상으로 상대적으로 服飾史 연구가 감소된 경향을 보였다고 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韓國服飾史 연구가 69.4%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우리의 전통복화에 대한 존중으로 과거의 복식에 관한 연구가 그 한 부을 해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韓國服飾史와 西洋服飾史 연구는 1985~90년에 와서 감소되었지만 東洋服飾史의 연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국제정세가 다변화함에 따라 상호문화 교류의 한 방안으로 服飾史 연구에서도 그 연구범위가 확장되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韓國服飾史의 연구방법에 있어서도 다른 국가의 服飾史와 비교분석하는 등 그 연구범위가 변화하여 왔음을 시사한다. 앞으로도 우리 복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東洋 여러국가 및 민족의 복식 연구와 상호연관적인 韓國服飾史 연구의 성숙한 발달이 기대된다.

衣裳社會心理學 분야는 전체 연구의 14.2%를 점유하여 1970년 초기에 국내에 처음 등장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다. 종래의 衣類學은 주로 自然科學的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해 人

<표 4> 연도별 연구주제의 변화

주제 / 기간	의복구성학		피복과학		복식의장학		복 식 사		의상심리학		의류상품학		기 타		계	
	N	%	N	%	N	%	N	%	N	%	N	%	N	%	N	%
1959 ~1964	0	0.0 0.0	6	42.9 2.8	2	14.3 9.1	2	0.0 1.2	0	0.0 0.0	0	0.0 0.0	4	28.6 57.1	14	100
1965 ~1969	3	42.9 3.8	2	28.6 0.9	0	0.0 0.0	2	28.6 1.2	0	0.0 0.0	0	0.0 0.0	0	0.0 0.0	7	100
1970 ~1974	7	25.0 8.9	11	39.3 5.1	0	0.0 0.0	8	28.6 4.6	2	7.1 2.3	0	0.0 0.0	0	0.0 0.0	28	100
1975 ~1979	9	8.0 11.4	47	41.6 21.7	5	4.4 22.7	40	35.4 23.1	9	8.0 10.2	2	1.8 5.9	1	0.9 14.3	113	100
1980 ~1984	30	14.9 38.0	43	21.3 19.8	6	3.0 27.3	77	38.1 44.5	36	17.8 40.9	9	4.5 26.5	1	0.5 14.3	202	100
1985 ~1990	30	11.7 38.0	108	42.2 49.8	9	3.5 40.9	44	17.2 25.4	41	16.0 46.6	23	9.0 67.6	1	0.4 14.3	256	100
계	79	100.0	217	100.0	22	100.0	173	100.0	88	100.0	34	100.0	7	100.0	620	100

(a\b, a : 연구주제내의 기간별 %, b : 기간내의 연구주제별 %)

社會科學적 특성을 갖는 衣裳社會心理學은 많은 硏究者들에게 새로운 학문으로서 각광을 받았으며 그 연구가 가속화되어 1980~84년에는 가장 활발한 연구활동을 보여 주었다. 1985~90년에는 전체 연구주제에 비해 그 연구의 비율이 약간 감소되었는데 이는 衣裳社會心理學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衣類商品學에 대한 연구로 그 관심이 전이된 것으로 여겨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자아를 중심으로 한 자아개념, 가치관, 욕구에 관한 연구가 많은 편이나 그 주제에 대한 연구추세는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人間의 상징적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인상형성, 동조성, 유행에 관한 연구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衣服構成學 분야는 12.7%를 차지하는데 衣服의 기능성과 원형제작에 관한 연구가 많은 편이었다. 1965~69년에는 衣類學 연구가 단지 衣服構成學, 被服科學, 被服史 분야에서만 이루어져 衣服構成學 연구가 강한 연구추세를 보였으나 1970년 이후에는 연구의 양적 증가에 비해 그 연구의 강세는 약화되었다. 초기의 衣服構成學은 기성복의 대량생산체제가 가능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그 연구에 관심을 모았는데 1970년대 후반에 중고급 기성복의 대두로 대량생산에서 요구되는 원형제작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그러나 1980년에 들어와서는 패션산업의 등장으로 消費者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衣服製作의 획일성에서 벗어나 衣服構成學 연구의 전환점을 맞이하였다고 본다. 즉 대량생산에서 소량다종생산화 경향이 나타나 다양한 消費者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획일적인 원형제작이 아닌 Computer에 의한 원형제작연구나 신체장애나 노년층을 연구대상으로 特殊衣服製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衣類商品學 분야의 연구는 1970년 후반 패션산업이란 용어가 생기면서 활기를 띠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게 증가되어 왔다. 이 분야는 패션산업이 정보산업과 소비자지향산업이라는 점에서 패션정보의 수집과 消費者에 대한 정확한 분석 및 활용은 패션산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消費者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특히 消費者의 의사결정과정에 관한 연구는 전체의 44.1%로 가장 높은 관심을 보였고 최근, 무역개방에 관련되어 국제적인 패션산업에 관한 연구도 주목할만 하였다. 現代社會에서 국내외의 상품패션화 추세에 맞추어 국내의 消費者 중심의 연구가 계속 기대되고 그 産業이 전문화됨에 따라 패션산업은 원사, 직물, 완제품 유통 등의 전과정이 통합된 시스템화를 위하여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가

參 考 文 獻

1) Forney, J. C., Global Perspective Education: A Rationale for Textiles and Clothing,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2), 8-13, (1984)
2) 문수재, 이기열, 한국 가정학의 미래발전을 위한 검토, 대한가정학회지, **22**(3), 181-198, (1984)
3) Clothing and Textiles move Forward, *Journal of Home Economics*, **48**(8), 635-639, (1956)
4) Braisie, M., Brew, M. L., Fitzsimmon, C., Rankin, M., and Smart, R. C., Research Areas of Textiles and Clothing, *Journal of Home Economics*, **39**(10), 620-624, (1947)
5) Anspach, K., Clothing Research in Home Economics, 1929-1958, *Journal of Home Economics*, **51**(9), 767-770, (1959)
6) Chowdhary, U. and Meacham, E., Changing Focus of Textiles and Clothing within Home Economics: An Analysis of Two Professional Journal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 15-18, (1983-84)
7)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 의생활편, 대한가정학회편, 신광출판사, (1977)
8) 가정학연구의 최신정보 II, 의류학편, 대한가정학회편, 신광출판사, (1984)
9) Bernard, Berelson, Content Analysis in Communication Research, New York: Hafner Publishing Company, (1971)
10) 대한가정학회지, 1-28(2), (1959-1990)
11) 한국의류학회지, 1-14(2), (1977-1990)
12) 복식, 1-13, (1979-1989)
13) Pederson, E. L., The Ecological Alternative: An Option for the Futur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2**(2), 22-24, (1984)
14) Bubolz, M. M., Eicher, J. B., and Sontag, M. S., The Human Ecosystem: A Model, *Journal of Home Economics*, **71**(1), 28-31, (1979)